

위 암

편 집 부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암의 발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암”에 의한 사망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면에서 암의 원인, 진단, 치료 및 예방에 관한 상식을 증상별로 알아본다. (편집자주)

보사부자료제공

4. 위암의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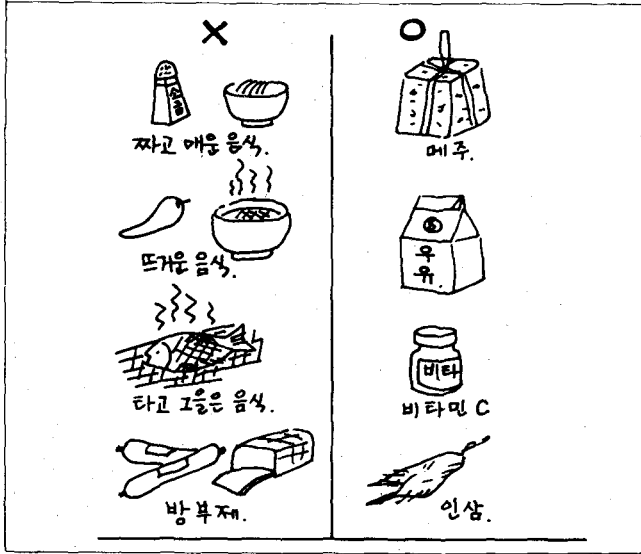
이 무서운 인류의 공적인 암을 완전 정복하기 위하여는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하나 암의 다원인론과 복잡한 환경요인 때문에 완전예방은 어렵고 발암물질들을 음식물이나 기호품에서 제거하는 등의 소위 제1차적 암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완전예방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발생된 암의 조직진단이 암치유를 위하여는 중요한 사실이다. 따라서 암의 조기진단은 암의 제2차적 예방이라고 불려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는 음식물이 체내에 들어가서 어느 기간동안 저장되어 저장과 살균이 되는 기관이다. 저장되는 기간동안 위점막은 음식물과 계속 접촉을 해야하고 만약 음식물이 유해한 화합물이나 발암물질을 포

함하고 있다면, 불가피하게 위점막은 이것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이유로 식생활 습관이 다름에 따라 위암의 발생빈도도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된다.

우리나라가 위암의 빈발국인 것은 역시 식생활의 영향인 것이다. 우리국민들은 예로부터 맵고 짠 음식을 좋아했으며, 고기나 생선을 불에 그을려 먹고 있다.

맵고 짠 것이 위점막을 자극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또 고기나 생선을 태울때 타는 부분에(가열분해) 발암물질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음식중에는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들도 있다. 우리교실의 실험에 의하면 된장을 비롯하여 우유, 신선한 녹색채 야채, 과일 등과 인삼이 이에 속한다.



위암 발생과 관계가 있다고 믿어지는 음식물과 억제효과가 있다고 믿어지는 음식물

센트 이상 완치가 기대된다.

조기 위암 가운데도 점막층에 국한된 점막암은 100퍼센트가 완치가 가능하다.

점막에 국한된 조기 위암은 임파절 전

이들 음식물이 어떻게 발암 물질과 작용하여 위벽을 암발생으로부터 보호하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암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으로 위의 저산증과 위 부분절제가 있다. 이때는 산의 분비가 적어 살균력이 떨어진 위내부에 세균이 증식되어, 멸균상태이어야 할 위내에 박테리아의 군집을 이루게 된다.

대장균은 이 세균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종류로, 대장균은 단백질의 질소로부터 니트로소 화합물을 생성하는 능력을 갖는다.

이 니트로소 화합물이 암 생성에 작용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암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예방과 조기발견이다. 아무리 악성의 종양이라도 조기발견하여 조기에 합리적 치료를 한다면 좋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완치까지 바라볼 수가 있다. 위암은 조기 위암때 발견하여 수술하면 95퍼

이가 거의 없으나 점막하층까지 침범했을 경우 가끔 임파절 전이를 보이는 수가 있다. 이런 경우 깊이로 보아서는 조기위암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진행위암에 준비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암의 예방은 식이의 선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암의 가능성이 있는 음식을 피하고 싱싱한 야채를 많이 섭취하며, 과음, 과식을 피하며 적절한 체중의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 종래의 전통적 식단은 야채를 많이 섭취하고 열량은 대부분 탄수화물에서 공급받고, 적당량의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해왔다.

생활이 나아지면서 육류의 소비가 늘고 열량의 과다 소비의 경향을 보이며 도시의 일부 계층은 지방의 소비도 과도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암의 발생이 늘어난다고도 볼 수 있다. †